◇ 영화를 통해 본 홍콩의 위기의식

"마침내 1997년이 다가온다"

◇경극과 현실속의 性을 혼동하는 '패왕별희'의 한 장면

폭력·性 전이…세기말적 불안의 역설적 표현

영혼을 잠식하는 불안

1997년 7월 1일이면 홍콩(香港)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

그러나 89년 6월에 있었던 천안문 대학살 사건 이후 홍콩의 안정된 미래를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홍콩 사람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그들에게 1997년보다 더 다급해진 것은 돈을 모으는 일이다. 요즈음 홍콩에서 가장 번창하는 사업은 이민 중개업, 외국어 학원, 본토에의 부동산 투자 그리고 영화산업이라고 한다. '홍콩이냐, 이민이냐?' 양자택일의 고민을 하는 와중에서 일단은 한건하고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지로 떠나려는 현량주의 심리가 팽배해 있다. 온 도시와 국가가 홍콩 영화 '요수도시(妖獸都市)'처럼 혼돈과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다.

홍콩 사람들은 연간 평균 11만명의 영화를 관람한다고 한다. 이는 미국인의 두배가 넘는 수치이다. 놀랍게도 이들은 홍콩 영화에 상당한 애착을 보이고 있다. 헐리우드도 홍콩의 아성을 깨뜨리지는 못했다. 홍콩인의 특수한 심리는 홍콩인만이 이해하고 풀어낼 수 있기 때문일까? 1997년 이후에 대한 세기말적 불안(fin-de-siecle Hancertainty)증후군은 그대로 홍콩영화에 반영되고 있다. 84년 말 영·중조약이 조인되어 1997년 본토 반환이 공식화된 이후 만연해진 염세주의가 오우삼의 '영웅본색(86)'에 드러난다. 주윤발이 분한 마크리는 영웅을 통해 관객들은 자신의 영혼마저 잠식하는 홍콩의 불안감을 극복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서극 감독은 중국의 역사와 고전문학 속의 이야기들에 매혹되어 청조 시대 고전 기담집에 실린 설화 '섭소천'을 토대로 한 영화 '천녀유혼(87)'을 제작한다. '천녀유혼'에는 밤의 세계를 떠도는 인물이 있다. 귀신과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서 또 다른 허무주의가 발견된다. 홍콩인들은 고전설화 속에서 중국 대륙을 향한 노스탤지어를 느끼며 '내가 탐구하는 것이었다.

허안화 감독은 '객도추한(90)'에서 중일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태어난 장만옥이 세월이 흘러 일본인 엄마를 찾아 홍콩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보여준다.

이들 영화는 홍콩의 정체성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오우삼의 '영웅본색'과 '첩혈쌍웅'이 홍콩의 암흑기를 배경으로 한 권총 든 도시영웅 이야기인 반면, 서극의 '황비홍'은 역사와 전설속에 등장하는 무림의 검술 영웅이다. 두가지 장르 모두 폭력의 미학이 뒷받침되고 있다. 주윤발과 이연걸로 대표되는 스타들은 불안한 홍콩 관객들의 억압된 욕망의 대리 충족자인 것이다. '소오강호'의 속편격인 '동방불패(92)' 이후 홍콩 영화제에는 남녀의 역할을 교체하는 역복풍(cross-dressing boom)이 일어난다. 동방불패 임청하가 그 대표주자로 그녀는 중성의 이미지로 관객들에게 대대적으로 어필한다. 역할의 괴리에서 오는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정보의 독권을 가진 관객한테 그것은 웃음의 대상일지 모르나 영화속 인물은 심각한 혼돈에 빠져있는 것이다.

중국어 문화권과 영어 문화권의 혼합지대인 홍콩은 유교적 세계관과 냉혹한 자본의 논리가 공존하는 역사적 공간이다. 1997년 본토에 귀속되어도 1국가 2제도의 원칙에 의해 당분간은 자본주의 체제를 지속할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다. 격어도 89년 천안문을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말이다. 홍콩이라는 도시는 하나의 거대한 쇼핑센터이다. 홍콩영화제는 상품가치가 있는 영화들이 민감하다. 고전무협에서 영웅담을 끌어내 헐리우드의 SFX로 포장해내는 상술을 갖고 있다. 북경 오페라의 전통에 코미디를 가미하고, 귀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등 각종 아이디어를 결합해 잡종(hybrid)을 생산해 낼지라도 홍콩인들은 오리지널한 감수성으로 즐긴다. 1997년 7월 1일을 향한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다. 느와르의 우울한 영웅, 한탕주의 도박꾼이 스크린에서 사라지고 고전무협의 영웅들이 부활하고 있다. 중성 동방불패에 대해 표한 카리스마를 느끼면서 동성애의 백일몽이라도 꾸어야만 홍콩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

박 숙 희 〈자유기고가〉

문화단신

민예총 '다시서는 봄'공연 고전음악가, 민중음악 선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은 민중노래 연합공연 '다시 서는 봄'(문호근 연출, 박인배 기획)을 오는 9일 오후 6시, 10일 오후 2시30분, 6시 세 차례에 걸쳐 공연을 갖는다. 민예총은 90년 봄부터 대년 대중운동의 고양을 위해 대규모 야외공연을 가져왔다. 이번 공연은 이러한 성과를 수렴하고 민중노래를 공식화하는 자리로, 가장 큰 특징으로는 고전음악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직접 민중음악을 선보인다는 것이다.

이번 공연장은 대학로와는 달리 유동인구 흡수가 불가능한 만큼 유동인구 흡수를 위해 지난 3월 26일과 4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노래공연과 굿 등을 경합시킨 가두홍보 공연을 가졌다.

민예총은 '다시 서는 봄'을 시작으로 올해 네 차례의 세종문회회관 대극장 공연을 계획중이다.

'저 섬에 무슨 일 났나?'

극단 민예가 4월 5일~5월 5일 한달간 미도파 메트로홀에서 뮤지컬 '저 섬에 무슨 일 났나?'를 공연한다. (염인희 작, 강영걸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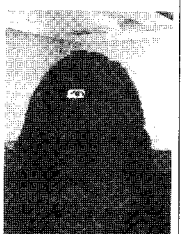
서해안의 한 섬마을에서 벌어지는 동제를 소재로한 작품. 마을에 내려오는 못된 풍습을 심층적인 놀이로서 표현하면서 주민들이 근원적 인간성의 본질을 스스로 재 인식한다는 줄거리이다.

형식상 서양 뮤지컬의 양식을 지니고 있으나 국악과 양악이 결합여겨 독특한 무대가 될것이다.

전통문화 영문소개서 발간

자유기고가이자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경희씨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영문서 '한국의 문화(Korean Culture)'를 펴냈다.

이 책은 사진설명 수준에 그쳤던 지금까지의 한국문화 소개서와는 달리 오랜 취재와 연구를 거쳐 쓰여진 것이다.



(좌) 작품의 소재가 되고 있는 눈이 예쁜 독일소녀와 함께
(우) "…40년의 얼굴"에 선보인 눈을 소재로한 작품

'현대미술 40년의 한 얼굴'

■경희를 빛낸 예술인 - 우근병 동문

지난달 15일부터 중앙일보사 주최로 호암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현대미술 40년의 얼굴'전은 한국의 미술사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새롭다.

이번 전시회는 현대미술이 걸어온 흐름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미니멀리즘, 하이퍼 리얼리즘, 민중적 리얼리즘에서 최근의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다양한 시조를 받아 들이며 발전해온 서양화는 물론 실경과 채색으로 한국적인 자생 회화를 찾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 미술 40년의 얼굴을 풍부한 표정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번에 작품을 소개한 작가는 모두 20인. 화가는 물론 미술평론가와 미술관련 언론사 기자들의 의견을 심분 고려, 투표에 의해 선정됐으므로 작가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듯 40년의 한국미술사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중합정리된 이번 전시회에서 특히 30대 젊은 기수로 주목받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육근병(陸根秉)동문(미교·77)이 그 주인공. 그는 설치미술가요, 행위예술인(Performancer)이다. 그가 이번 "…40년의 얼굴"에서 선보인 작품은 (풍경의 소리+터를 위한 눈)이란 제목의 조형물. 무덤속에 하나의 모니터가 있고 그 모니터는 눈동자를 통하여 물체의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섬세이 포착하고 있다. 이 작품에 대해 그는 "인간본체를 우주의 축소체로 생각하고 눈을 인간본체의 극소체로 규정했다"고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눈(目)이 곧 우주'라는 그의 규정도 같은 맥락이라 살펴볼 수 있다.

"졸업후 홍대·서울대·우리학교 출신 미술인들로 결성된 타라(TARA)라는 모임에서 활동했습니다. '현실과 발언' 등 그룹전이 활발했던 시절, 타라는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강했지만 행동은 전혀 드러내지 않았던 그룹이었습니다." 홍대주류 사단"이 미술계에 포진해 있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경희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이들로 부터 인정을 받아오던 그가 어느날 돈키호테와 같은 일을 저질러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87년 '미술세계'에 실었던 70매 장당의 '제도왕국으로의 탈출'이란 글이 미술계에 커다란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킨 것.

"홍대 비대가 한국미술의 중추이며 또한 그들이 한국미술을 이끈 공로는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의 파벌주의는 이제 제도화되어 후배는 선배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순수미술을 지향해야 할 미술인들이 제도권에 안주하고 있다"는 폭로성 짙은 이 글은 얼키고 설킨 미술계의 인맥에 홀로 대항했던, 한마디로 '달걀로 바위치기식'의 사건이었다.

그는 이 사건이후 무대를 일본으로 옮겨 '타라전' 등에 참가하면서 국제적인 인사로 급부상한 육동문. 그의 화려한 작품활동 경력 가운데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92년에 열린 '카셀 도큐멘타'에 초청된 최초의 한국인이 되었다는 점이다.(註: 카셀 도큐멘타는 5년마다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 최고권위의 전시회. 여기에 초청되는 작가는 '현대미술을 이끄는 세계의 15인'에 선정된다. 괴카소, 달리 등의 작가들이 빛유 보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다.) 대화보다 남구를 즐겼던 육동문의 대학시절은 다양한 에피소드로 가득하다. 김관수(미교·74), 박은수 (미교·73) 등은 동과 함께 세계 곳곳에 '성희'를 빛내고 있는 육동문은 "삶의 모습 그 자체가 예술성의 큰 덩어리이며 역사성입니다. 예술인은 삶의 본질을 깨닫고 이를 작품으로 구성해 낼 수 있도록 꿈꿈없이 도전해야만 합니다."라고 그만의 독특한 예술관을 피력한다.

〈이유경 記者〉

문화원 탐방

⑤ 영국문화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세익스피어의 나라'

영국문화원은 1934년 설립되어 다른 나라와의 문화교육 및 기술적인 협력증진 등을 추진하는 영국의 정부기관으로서, 런던과 맨체스터 본부를 중심으로 80여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다. 주한 영국문화원은 1973년 서울 정동에 설립되어 현재 한·영 학술 교류지원, 영어학교 운영을 통한 영어교육과 자문, 영국 각 예술단체의 한국내 공연 주선, 영국 유학에 관한 상담실 운영, 도서실 운영, 장학생 선발 등의 일을 하고 있다.

문화, 예술의 홍보보다는 유학과 교육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영국문화원은 유학담실(ECS:Education Counselling Service)과 어학센터(Language Centre), 도서실의 세부서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ECS의 활동을 보면, 영국의 대학교육과 유학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설명은 물론 대학 대표자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어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있다.

현재 일반 영어회화 과정, 캠브리지 대학 영어자격시험 응시자를 위한 과정, 비지니스를 위한 영어 과정의 세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어학센터는 영국인 강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유학등 교육사업에 주력

◇영국의 명문 옥스포드대

도서실에는 영국의 교육제도, 역사, 각 가판등 영국 전반에 관계되는 1만여 권의 장서와 신문 및 정기간행물, 비디오 등의 자료를 비치, 개방해 놓고 있다. 또한 회원권을 지닌 사람에 한해서 책과 잡지는 대출이 가능하며, 영국 국립 도서관에 수장되어 있는 논문도 구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29일에는 홀린 엔드루즈와 자네트 파셀의 오르간 연주회를 지원하는 등 영국의 교육, 언어, 문화 소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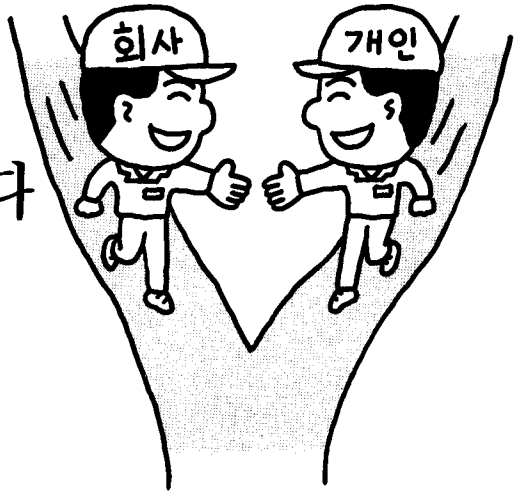
〈김민주 記者〉

현대 미술 이끄는 '세계의 15인'에 뽑혀

럭키금성의 실체변혁

기업과 개인도 궁합이 필요하다

회사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개인은 비전에 따른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워 함께 정진할 때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개인의 비전과 회사의 비전"

비전은 정책이자 원칙

그룹의 비전은 여러 개인들이 제시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들이 모두 어떤 일정한 가치관을 공유토록 하는 것이다. 물론 이때의 가치관은 바로 경영이념을 말한다. 또 비전이란 사업특성에 따라서 각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전개하면서도 지켜야 할 원칙이자 방향을 뜻한다. 그래서 그룹의 비전은 바로 그룹 전체에 통용되는 정책이자 원칙이며 가치관인 것이다. 이 원칙하에서 각자 맡은 제각기 사업문화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인도별, 단계별 목표를 세워야 하며, 이에 적합한 경영방식 또한 각자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각기 그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의 비전을 회사가 만들어줄 수는 없다

개인의 비전은 회사가 만들어 줄 수 없을 뿐더러 신경 쓰지도 주었다는 말도 해도 될 듯한 낱기로 한 자리를 셋까지 낳았으니, 몇 번까지 집을 장만하겠다고 했는데 왜 자꾸의 낳아만 하여 집 장만에 실패했으니는 따질 수도 없다. 결국 개인의 비전은 개인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 원리는 회사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개인이 회사에 입사하여 몇 년 되에 과장이 되고, 몇 년 뒤에 부장, 사장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운다. 그러나 이처럼 막연히 뭐가 되겠다, 하는 목표만 갖고 있다면 어떤 어려운 때 대응력이 되겠나. 장군이 되겠다 하는 분과 다를 바 없다. 그러면 어떻게 꿈을 가져야 할 것인가?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자

한 사원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LG그룹에 입사한다. 물론 이 사원에게도 언젠가는 사장이 되겠다는 꿈이 있을 것이다.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그는 먼저, "고객에 관한 모든 자료를 입력시켜 LG슈퍼마켓을 개발하여 이 가게는 유나는 신용구매, 홈 쇼핑, 해외주식에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뿐만 아니라 이 가게 한 점으로 그래도 어디서나 가장 화려한, 진짜의 개인 전문가가 되고, 건강보험증, 레저시설 회원증 등을 대신할 수 있도 하겠다. 그러하여 일반 생활이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해서 세계적인 공랑기업의 사장이 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개인과 회사가 함께가는 비전

이처럼 개인의 목표가 분명하고 명확할 수 있고, 스스로 하고 싶은 분야의 목표이며, 또한 구체적일 때 이 목표는 꿈이 아닌 비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인의 비전은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입사한 사원이라면 우선 회사 비전의 방향과 면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이 범위 안에 있는 이런 분야에서 제일 최고가 되겠다, 앞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 언젠가 꼭이 되겠다, 사장이 되겠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꿈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다만 회사는 회사 비전의 범위 안에서 개인이 스스로 그 꿈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돈, 사람, 시스템 등을 지원함으로써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이때 회사는 공정한 평가, 공정한 인사를 통해 남보다 늦은 성과를 내기라도 빨리 달성한 사람에게도 동일 보상과 더 빨리 승진을 보장해 주어야만 하고, 이런 상태에서만이 개인은 회사의 비전에 맞춰 자신의 비전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 구자경회장 저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중에서

인간존중의 경영 럭키금성